|  |
| --- |
| **1. 주제 (10점)**  **비건 상품을 모아놓은 웹페이지 개발**  **나반, 5팀, 20211728** |

|  |  |
| --- | --- |
| **2. 요약**  이 프로젝트는 비건을 지향하는 사람들의 편리함과 비건에 도전하는 사람들의 진입 장벽을 낮춰주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저는 비건 상품을 모두 찾아본 후 카테고리별로 분류하여 페이지를 구성한 후 구매할 수 있는 사이트의 링크를 각각 다는 것을 핵심으로 생각합니다.  기대되는 효과로는 기획 목표에서도 언급했듯, 편의성과 친근함입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채식주의자들은 더 편하게 시중에 판매되는 비건 제품을 구매할 수 있고, 비건에 도전하려는 사람들은 제안된 추천 상품을 통해 비건에 쉽게 도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 **3. 대표 그림**    저는 비건의 단계(비건, 락토, 오보 등)를 사용자에게 입력받고, 원하는 단계로 상품을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을 넣고 싶습니다. 저희 프로젝트와 기존 비건 웹사이트와의 차이점은 자신의 단계에 맞추어 상품을 검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능은 이미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가격이나 회사 등을 검색하는 것이 아니라 비건의 단계를 검색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

|  |
| --- |
| **4. 서론**  저는 환경에 관심이 많아 1학기에 환경 동아리에 가입했습니다. 동아리에서 중요한 키워드가 ‘비건’이었는데, 오픈소스 프로젝트 주제를 구상하면서 비건을 위한 상품들을 모아 놓은 웹페이지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주제가 비건 웹페이지로 확정이 된 후 비슷한 웹페이지가 있는지 찾아보니 딱 한 개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비건을 위한 상품을 모아놓았다” 라기보다는 상품 홍보의 느낌이 강했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를 통해 정말 비건을 위한 웹페이지를 만들어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극복 방안으로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사용자들이 보기 편하게 예쁘게 만드는 것입니다. 방금 언급했는 웹페이지는 20년 전의 디자인 같아서 보기도 불편했을 뿐만 아니라 상품을 찾아보려는 마음조차 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페이지를 예쁘게 구성하는 것이 가장 필요한 극복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두번째는 선택 영역의 확장입니다. 비건 제품을 인터넷이나 마트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집 근처 비건 매장에서도 살 수 있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모든 비건 매장을 찾기는 힘들겠지만 비건 키워드를 포함하는 매장을 부록처럼 넣는 기능을 구현해보고 싶습니다. |

|  |
| --- |
| **5. 본론**  저희의 가장 큰 과제는 웹스크래핑을 통해 최대한 많은 비건 제품들을 저희 웹사이트에 올리는 것입니다. 아직 웹스크래핑이나 HTML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힘들지만  일단 저는 일반적으로 쇼핑 사이트로서 널리 사용되는 웹페이지의 형식을 그대로 쓰는 게 가장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선택을 받은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저희는 “주제”와 “검색 방식”에서 차별점을 둘 수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듯 “비건 웹페이지”는 서론에서 언급한 사이트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주제입니다. 가격이나 회사명, 무게 등이 아닌 ‘비건의 단계’를 중점적으로 검색할 수 있게 하는 기능 또한 새로운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가격 등도 꼭 필요한 기능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비건’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능을 넣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사용될 수 있는 기술은 한 개체에 비건의 단계를 일명 ‘해시태그’로 붙여 분류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에 파이썬 Pandas의 기능을 사용하면 쉽게 분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진은 ai와 데이터 사회 과제의 일부입니다. 위와 같이 Pandas를 사용해서 쉽게 분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  |
| --- |
| **6. 결론**  앞으로 제가 해야 할 일은 HTML과 웹스크래핑 방법을 공부하여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또한 제가 아이디어 제안자이기도 하고 동아리 활동을 통해 비건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실제 비건들의 선호 제품을 추천받아 웹사이트에 일명 ‘추천 상품’으로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흔히 ‘비건’이라고 하면 지루해 하거나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는 그러한 편견을 깨고 싶습니다. 이 프로젝트에서 비건 식품을 모아놓은 사이트를 멋지게 꾸밈으로써 ‘비건’을 다가가기 쉬운 주제로 인식하게끔 하는 것이 제 가장 큰 목표입니다. |

**7. 출처**

[1] 서론에서 언급한 웹사이트 : 채식사랑

<http://www.veganlove.co.kr/?NaPm=ct%3Dkvcdhrxn%7Cci%3Dcheckout%7Ctr%3Dds%7Ctrx%3D%7Chk%3D823c5ccca88eba76a207777e5859cac3b101cc09>